바르톡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내일 광주시향 연주회…피아니스트 문현옥씨 협연

〈지휘 금노상씨〉

〈문현옥 교수〉

광주시향 제227회 정기연주회가 6일 오후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상임지휘자 금노상씨의 지휘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베토벤의 '피델리오' 서곡으로 문을 연다.

이어지는 협연무대를 장식하는 사람은 피아니스트 문현옥(전남대 교수)씨. 연세대학교와 미국 템플 대학에서 수학한 문씨는 베토벤의 '피아노협주곡 3번'을 연주한다.

피날레 곡은 헝가리 현대 음악의 대표 작곡가인 바르톡의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이 장식한다. 바르톡은 코다이와 함께 현대 헝가리 음악을 개척한 선구자로 꼽히는 인물로, 특히 헝가리 민요 등을 활용, 민족적 색채가 강한 음악을 만들어왔다.

미국에 망명한 지 3년 후인 1943년 창작된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은 보스턴 심포니의 지휘자 쿠세비츠키 탄생 70주년을 기념해 위촉받아 작곡한 곡으로 그의 작품 중 가장 화려하고 감각적인 음악으로 꼽힌다. 문의 062-524-508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지역 예술인과의 만남

다원예술소위 합동포럼 7일 의재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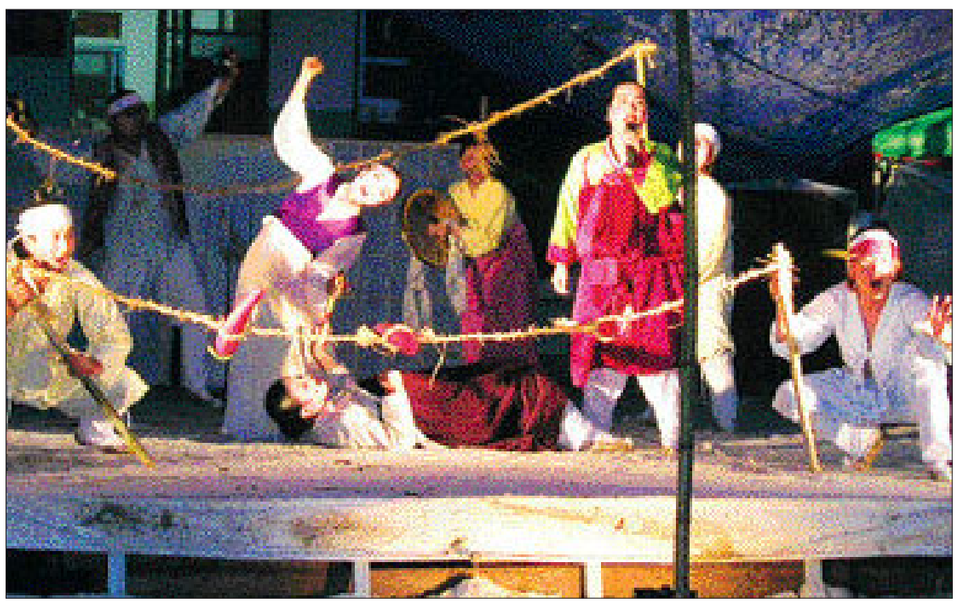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소위원회가 주최하는 '지역 예술인과의 만남-지역은 또 다른 비상구' 합동포럼이 7일 오후 3시 의재미술관에서 열린다.

이 행사는 열악한 지역 문화예술 환경에서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단체들을 통해 '지역'의 대안을 찾아보기 위해 마련됐다.

전효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소위)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 행사 1부에서는 이광준(예술경영지원센터팀장)씨가 '예술의 계보학, 지역예술의 힘', 전고필(북구문화의집 상임위원)씨가 '지역과 새로운 예술흐름'을 주제 발표한다.

또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는 원영오(극단 노뜰 대표), 김병수(공공작업소 심심소장), 화가 윤남웅, 한보리(시하나노래하나 대표)씨 등이 사례를 발표한다. 2부에서는 지역예술인과의 만남 행사도 열린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장맛비가 내리는 가운데 열린 보성 공연예술촌 연바람의 1주년 기념 무대에 오른 마당극 '심청'이 관객들의 호응을 받았다. 〈연바람 제공〉

보성에 터잡은 공연예술촌 연바람 개원 1주년

예술향기 가득한 '문화공동체'

쏟아지는 장맛비도 그들의 순수한 열정을 막지 못했다. 김치 얹은 돼지고기에 막걸리 한잔 걸친 마을 어르신들의 흥겨운 추임새 따라 배우들은 더욱 신명이 났다. 지난 1일 보성군 녹동면 옛 명봉초등학교에 위치한 공연예술촌 연바람의 1주년 기념식 현장. 마당극 '심청'을 무대에 올린 배우들과, 흔쾌히 축하 무대에 함께 서준 동료 예술인들, 그리고 빗속을 뚫고 달려온 진심어린 관객들은 모두 하나가 되었다.

지난 1989년 코스모스라는 이름으로 연극판에 뛰어든 극단 푸른연극마을이 광주여고 건너편에 위치한 전용극장 연바람을 떠나 보성의 한 폐교로 찾아든 건 지난해 4월이었다. 단원들은 함께 숙식을 하며 폐교를 사람 온기 가득한 '공연 예술촌 연바람'으로 변모시키고 지난해 7월2일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해돋움 축제'를 열었다.

지난해 휴가철 무대에 올린 세익스피어의 '한여름밤의 꿈'에는 1천700여명이 다녀갔다. 텐트를 대여한 관객들은 함께 공연을 보고, 음식도 나눠먹고, 쏟아지는 별빛 아래서 추억을 만들어 갔다.

다양한 형태의 공연…'토속성'으로 승부

이윤택씨가 이끄는 연희단 거리패가 경남 밀양의 폐교인 월산초교에 꾸린 밀양연극촌은 해마다 '밀양연극제'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야외연극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보성의 연바람은 아직 걸음마 단계지만 8월11~15일까지 창원의 현대극장과 대구의 한울림 극단을 초청, 함께 무대를 꾸미기로 했다.

이 행사 때는 연극뿐 아니라 시 퍼포먼스, 무용극, 그림자극 등 다양한 형태의 공연이 관객들을 찾아간다. 행사 기간 중에는 마을회관에서 민박도 가능하다.

또 7월20일부터 한달간은 매주 토·일요일 보성 율포해수욕장에서 연극 '한여름밤의 꿈'을 공연하며 8월초에는 4박5일 일정으로 연극을 비롯, 미술·사물 등이 어우러진 '작품'을 만들어 보는 청소년 숲속학교도 준비중이다.

가을쯤에는 광주에서 활동하는 꼬두메 등 다양한 문화활동가 그룹과 함께 어우러져 한달에 한번씩 다양한 형태의 무대를 만들어갈 갈 예정이다. 또 12월에는 푸른연극마을의 인기레퍼토리인 연극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을 공연한다. 올 안으로 번듯한 야외공연장과 실내공연장을 마련하고 작은 찻집도 구상중이다.

보성으로 옮겨오면서 푸른연극마을은 변신을 했다. 침체된 연극의 돌파구를 찾는 승부수를 '토속성'에 두기로 하고 연극을 중심으로 하되, 국악·무용·음악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종합예술단체로 거듭난 것. 현재 단원은 16명, 보성에 상주하는 인원은 8명이다.

8월 미술·사물 어우러진 예술제 기획

광주에도 전용소극장을 꾸리는 꿈을 잃지 않고 있는 푸른연극마을은 지난 6월 공연한 '심청'을 시작으로 우선 대관을 통해 광주에서도 정기적으로 작품을 무대에 올릴 예정이다. 공연작품은 '머슴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등이다.

"보성으로 간다고 했을 때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오성환 대표는 "뿌리를 내리는 데 3년 정도를 생각했는데 이렇게 빨리 자리를 잡아 복이라고 생각한다"며 "'부용산' 등 보성관련 작품 뿐 아니라 고흥과 장흥 등 인근 지역에 연관된 창작극, '오월 광주'의 이야기도 무대에 올리고 싶다"고 말했다.

윤금순(57·보성군 녹동면)씨는 "시골에서 이런 공연을 보게 돼 즐겁다"며 "지난해 '한여름 밤의 꿈'을 보았는데 너무 좋아서 팬이 되었다"고 말했다. 문의 cafe.daum.net/pyj2023, 061-853-3170.

/보성=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光州日報 연중 캠페인
문화감각을 키우자
〈4〉 발레 들여다보기

스토리 알고 보면 재미 '두배'

무용은 문화계에서 비인기 장르로 꼽힌다. 하지만 예외가 있다. 바로 발레다. 무용에 문외한인 사람도 '백조의 호수' '호두까기 인형' 등 발레 작품과 볼쇼이 발레단의 이름을 한두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발레가 탄생한 곳은 1390년께 이탈리아였지만 기초를 다진 곳은 16세기 프랑스였다. '발레(Ballet)'라는 용어가 생긴 것도 이 시기이고 모든 발레 용어 역시 프랑스어다. 특히 17세기 프랑스를 통치했던 루이 14세는 유명한 발레 무용수이기도 했다.

낭만·클래식·모던으로 구분

발레 구분법은 다양하지만 흔히 낭만주의 발레(Romantic Ballet), 클래식 발레(Claasical Ballet), 모던 발레(Modern Ballet)로 나눌 수 있다. 1841년 공연된 '지젤'은 낭만발레의 대표작이며 '잠자는 숲속의 공주' '호두까기 인형' '해적' 등은 가장 사랑받는 클래식 발레 작품이다.

발레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토 슈즈(Toe shoes)다. 토 슈즈는 신발의 끝부분에 여러겹의 종이를 아교로 고정시켜 나무처럼 딱딱하게 만들어 발레리나가 발끝으로 서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여자 무용수가 입는 의상의 이름은 '튀튀(Tutu)'다. '백조의 호수'에 등장하는, 뒤집힌 우산처럼 생긴 짧은 원피스를 '클래식 튀튀', '지젤'의 무용수가 입는 항아리 모양의 발목까지 내려오는 의상을 '로맨틱 튀튀'라고 부른다.

발레 공연의 백미는 주인공이 화려한 발레 기술을 보여주는 '그랑 파 드 되(Grand pas de deux)'다. 느린 아다지오 음악에 맞춰 남녀가 함께 추는 2인무로 시작해 남자 솔로, 여자 솔로, 빠르고 경쾌한 고난이도의 2인무로 마무리하는 '그랑 파 드 되'는 발레의 하이라이트다.

또 '백조의 호수'의 '왕궁무도회', '호두까기인형'의 '크리스마스랜드' 처럼 솔리스트(독무자)들이 줄거리와 관계없이 다채로운 춤을 보여주는 '디베르티스망(Divertisement)'은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준다.

공연중에도 박수·환호 괜찮아

발레를 감상할 때는 작품의 스토리를 미리 알고 가면 좋다. 무용수가 화려한 테크닉을 선보일 때는 공연중에도 환호성과 함께 박수를 쳐도 상관 없다.

이영애 광주시립무용단장은 "몸으로 이야기하는 발레리나들의 움직임과 함께 아름다운 음악이 어떻게 어우러지는 지 살펴보면 좀 더 흥미롭게 관람할 수 있다"며 "갈라콘서트 등에서는 무용수가 뛰어난 테크닉을 선보였을 때 수차례 커튼콜을 통해 무용수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시립무용단 '갈라콘서트' 7일 광주문예회관

7일 오후7시30분 광주문예회관에서 열리는 광주시립무용단의 '갈라콘서트'에 가면 '그랑 파 드 되'의 매력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갈라콘서트는 유명 작품의 하이라이트 부분만을 뽑아 무대에 올리는 것으로 '종합선물세트'같은 공연이다. 다양한 의상과 음악, 무용동작 등이 선보여 발레 초보자들이 편안히 감상할 수 있다.

무용단은 '잠자는 숲속의 미녀' '해적' '겐자노의 꽃축제' '로미오와 줄리엣' 등 유명 작품의 2인무를 선보이며 '잠자는 숲속의 미녀' 중 '여섯 요정의 춤', 해적 2막중 '3인무' 등도 함께 무대에 올린다. 오윤환·박선희·김정은·나도준·강선영·이상구·조나경·서태경·여숙현씨 등이 출연한다. 문의 062-510-9339